

# ‘나가수’ A씨, 녹화 중 물병 던지며 욕설

## 23일 녹화 관계자들 현장 폭로

### 가수 B 매니저와는 신체 충돌도 일부 여자가수는 울면서 자리 떠

장안의 인기를 얻고 있는 MBC ‘우리들의 일밤-나는 가수다’(이하 ‘나가수’)의 23일 녹화 때 출연진 중 한 명이 동료 가수들에게 험악한 말을 하고 물병 등을 던지는 등 소란을 일으킨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파문을 낳고 있다.

당시 현장을 목격한 관계자들에 따르면 ‘나가수’에 참여한 가수 A는 녹화가 거의 끝

나갈 무렵 동료 가수들에게 거친 말을 퍼붓고 집기를 집어 던지며 험악한 분위기를 조성했다. 그는 이어 대기실을 나온 직후 복도에서 가수 B의 매니저와 부딪치는 신체 접촉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을 목격한 한 관계자는 “A가 가수들이 다 같이 모여 있는 공간에서 이야기를 나누던 중 갑자기 언성을 높이고 욕설을 했다. 그리고 자신을 말리던 다른 가수들에게 물병을 집어던지고 위협적인 행동을 취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A의 갑작스런 돌발 행동에 일부 여자 가수는 놀라서 눈물을 보이며 황급히 자리를 뜨기도 했다고 한다.

이후 A의 소속사 관계자들은 방송 스태프

와 가수들에게 사과를 하고 상황을 수습했다. A와 신체 충돌이 있었던 B의 매니저도 프로그램을 위해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겠다고 입장을 밝혀 상황을 마무리했다.

당시 그 현장을 목격한 사람들이 많았지만 대부분 프로그램에 해가 될까 우려해 크게 문제를 삼지 않았다. 하지만 24일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스포일러가 등장해 애꿎게 옥주현과 이소라가 비난을 받는 상황이 되자 현장을 목격했던 사람들이 당시 상황에 대해 말하기 시작했다.

매 회 큰 화제와 인기를 모으고 있는 ‘나가수’는 최근 등장한 스포일러에 이어 일부 출연진의 ‘폭행 소동’이라는 새로운 악재를 만

났다. 이와 관련해 ‘나가수’ 제작진은 26일 스포츠동아와의 전화통화에서 “아는 바 없다”고 말했다.

한편 ‘나는 가수다’ 제작진은 26일 오전 프로그램 게시판을 통해 “황당한 루머들이 사실인 양 퍼져 해악을 주고 있다”며 수사의뢰 방침을 드러냈다.

제작진은 “가수들에게 고통을 줄까 우려되지만 (제작진으로서)사실을 설명할 필요가 있다. 스포일러가 계속될 경우 글 작성자는 물론 이를 옮기는 누리꾼에 대해서도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김원겸 기자 gymmy@donga.com 트위터@ziodadi

## ‘루머 맘고생’ 억울한 옥주현 결국 눈물...

‘나가수’의 스포일러와 루머로 인해 인한 마음고생의 후유증은 컸다. 스포일러에 언급된 두 당사자, 이소라와 옥주현은 나란히 고초를 겪었다.

‘나가수’ 참여를 두고 찬반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옥주현은 26일 KBS 2FM ‘옥주현의 가요광장’을 진행하다 악성 댓글에 울음을 터뜨렸다.

‘옥주현의 가요광장’ 관계자에 따르면 옥주현은 26일 낮 12시부터 프로그램을 생방송으로 진행하던 중 프로그램 게시판에 MBC ‘우리들의 일밤-나는 가수다’ 출연이 못마땅해 하는 누리꾼의 악의적인 글들이 계속해서 올라오자 울음을 터뜨렸다.

진행을 위해 실시간으로 게시판을 살펴본 옥주현은 자신을 지목해 올라온 악의적인

‘가요광장’ 게시판을 검색하다 악의적 댓글에 울음 터뜨려

글에 울컥해 울음을 터뜨렸고, 순간적으로 진행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다행히 그의 울음소리가 방송으로 나가진 않았고 제작진이 잠시 기지를 발휘해 시간을 버는 동안 마음을 진정시킨 옥주현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진행을 이어가 큰 위기는 없었다. 옥주현은 ‘나는 가수다’ 경연에서 탈락한 김연우를 대신해 23일 녹화본

부터 투입됐다. 이에 앞서 가수 이소라도 고열을 동반한 몸살로 인해 25일 자신이 진행을 맡고 있는 케이블채널 KBS JOY의 ‘이소라의 두 번째 프로포즈’ 녹화에 빠졌다.

이소라는 이날 서울 시흥동 금나래아트홀에서 진행된 ‘이소라의 두 번째 프로포즈’ 녹화에 참여할 예정이었지만, 피로 누적과 몸살로 인해 체온이 40도까지 올라가 자택에서 휴식을 취했다.

결국 진행은 초대손님으로 출연하는 김제동이 대신 했다. 김원겸 기자

## “공효진의 ‘뽀로로 마이크’ 주세요”

### MBC ‘최고의 사랑’ 인기 여파 휴대폰 케이스 등 소품도 불티

화제의 드라마는 주인공의 소품도 예사롭지 않다.

수목드라마 시청률 1위에 오른 MBC ‘최고의 사랑’(극본 홍정은·홍미란·연출 박홍균)에서 등장인물들이 쓰는 다양하고 독특한 소품들이 화제를 모으고 있다. 각 소품들은 주인공의 사랑을 이어주는 징검다리 역할을 하거나 조연 연기자의 캐릭터를 강조하는 도우미로 시청자의 눈길을 끈다.

가장 인기가 높은 소품은 ‘뽀로로 마이크’. 토종 캐릭터 뽀로로가 새겨진 이 마이크는 주인공인 차승원과 공효진의 사랑을 이어주는 징검다리로 매회 자주 등장한다. 드라마에서 들은 상대를 향한 마음을 고백하지 못할 때 이 마이크에 대고 독백을 쏟아낸다. ‘뽀로로 마이크’는 ‘최고의 사랑’에 등장하기 전부터 뽀로로 팬들의 필수 애장품으로 각광받았던 제품. 그런데 드라마에서 차승원, 공효진의 손을 거치면서 폭넓은 세대에 인지도도 쌓는 대중성까지 더해졌다. 이 소품을 파는 온라인 쇼핑몰도 수십 개다. 드라마에 등장하기 전에는 6~7000원 선이던 상품이 최근 활발해진 수요를 증명하듯 4000원대로 가격이 내려갔다.

최화정의 핑크색 휴대폰 케이스도 화제다. 기존 케이스와 비교해 두 배 가까이 큰 사이즈인 이 제품은 화려한 세계에서 일하는



뽀로로 마이크는 차승원과 공효진의 사랑을 이어주는 소품으로 등장한다. 사진제공 | MBC

엔터테인먼트사 여자 대표라는 최화정의 극중 캐릭터를 설명하는 데 적절히 활용된다. 유명 휴대폰 액세서리 업체가 만드는 이 케이스는 평소 이색 캐릭터 상품에 관심이 많은 최화정이 직접 찾아내 드라마에서 사용하고 있다.

이 밖에도 차승원과 공효진, 윤계상이 삼각관계를 맺게 된 결정적 계기가 된 만년필도 시청자의 눈길을 끈다. 역시 유명 브랜드 제품으로 모델별로 차이는 있지만 30~40만 원대 고가인데도 드라마에 등장하면서 트위터 등을 통해 시청자들의 관심을 얻고 있다. 포털사이트에서 윤계상의 이름을 검색하면 자동 연관검색어로 등장할 정도로 인기다.

이해리 기자

## ‘위탄’ 백청강 “한국 비하글...저 아닙니다”

### ‘홈피 글’ 논란에 직접 해명

MBC ‘스타오디션-위대한 탄생’의 최종 2인에 오른 중국 연예계 출신 백청강이 그랜드 파이널을 하루 앞두고 한국을 비하했다는 논란에 직접 해명하고 나섰다.

26일 오전 한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에는 백청강이 2009년 5월 싸이월드 미니홈피에 적은 내용을 캡처한 영상이 공개됐다. 영상에는 ‘청호’라는 아이디로 “한국이 뭐가 좋아! 우리를 무시하는데, 한국 가서 가수 되면 한국인을 다 밟아줄 거다”라는 글이 작성돼 있다.

캡처 영상을 게재한 누리꾼은 백청강이 자신의 미니홈피 방문록에 남긴 글이라고 주장했다. 그에 따르면 백청강은 현재는 ‘snake’(스네이크)라는 닉네임을 사용하고 있지만 당시에는 ‘靑虎’(청호)를 썼다고 주장했다.

백청강의 한국 비하 발언이 논란이 되자, 이번에는 누군가가 백청강의 ‘위대한 탄생’ 우승을 막기 위해 조작한 것이라는 반론이 나왔다. 의문을 제기한 누리꾼들은 “사진을 자세히 살펴보면 기존의 미니홈피 화면을 캡처한 후 포토샵으로 일부를 조작했음을 알 수 있다”며 “글을 쓴 사람의 아이디가 ‘청호’인데 백청강이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하나”는 반응이다.

또 이 논란이 27일 ‘위대한 탄생’ 그랜드 파이널을 하루 앞둔 날 벌어지진 점도 악의적 조작이라는 근거라고 주장했다.

논란이 커지자 백청강은 이날 오후 3시 30분께 미투데이를 통해 “여러분 많이 놀라셨죠. 저도 많이 놀랐습니다. 저는 절대 그런 글 쓴 적이 없습니다. 많이 속상해요. 그래도 내일 생방송에서 최선을 다할게요”라고 해명했다. 김민정 기자



연기자 오현경(왼쪽)과 정시아가 26일 서울 목동 SBS 사옥에서 열린 아침연속극 ‘미쓰 아줌마’ 제작발표회에서 담소를 나누며 즐거운 표정을 짓고 있다. ‘미쓰 아줌마’는 세상의 편견에 맞서 인생을 개척하는 싱글 맘의 인생역정기로, 30일 첫 방송한다. 임진현 기자 photolim@donga.com 트위터@binylata



사랑이 깊을수록 밥의 향기는 전해집니다. 당신의 사랑을 담으세요. **행남자기**

## 스타 온라인

### 박정현 ‘조공’ 인증샷...“이삿집 같아요”



가수 박정현의 ‘조공’ 인증 사진이 화제다. 25일 한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에는 ‘박정현 조공인증 귀요미’라는 제목과 함께 박정현이 화환과 케이크 등에 둘러싸인 모습이 담긴 사진 한 장이 올라왔다. ‘조공’이란 팬들이 준 선물을 의미하는 인터넷 용어. 이 사진은 22일 끝난 박정현 콘서트 ‘조공 더 가까이’ 대기실에서 찍은 것으로, 어색한 표정으로 웃고 있는 박정현의 모습에 누리꾼들은 “어색한 표정이 너무 귀엽다” “선물이 많아 꼭 이삿집 같다” 등의 댓글을 남기고 있다.

### 양정아 수영복 등장...“1991년 이후 처음”



연기자 양정아가 25일 방송된 KBS 2TV ‘로맨스 타운’에서 수영복 키스신으로 화제를 모았다. 수영복 키스신은 극 중 양정아가 남편 때문에 심란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 수영하는 장면에서 펼쳐졌다. 군데군데 구멍이 뚫린 빨간 원피스 수영복을 입고 군살 없는 몸매를 자랑하며 수영을 하던 양정아에게 옆집 남자로 출연중인 조성하가 다가와 기습키스를 감행한 것. 양정아의 이날 수영복 자태 공개는 1991년 미스코리아 선발대회에서 수영복 심사사 나선 후 처음이라고 한다.

## 스타 가라사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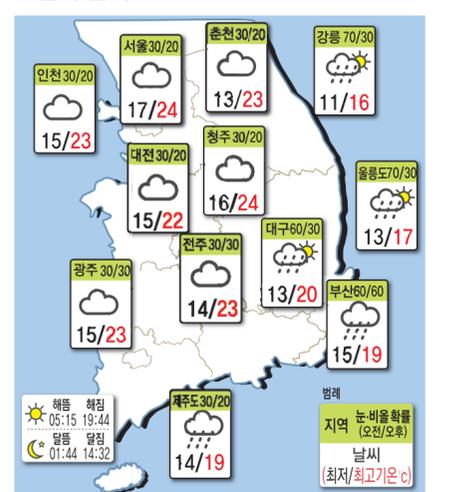
윤도현 “내가 보았다고 다 본 건 아닐거야. 내가 들었다고 다 들은 것도 아닐 거야. 상처가 있는 사람에겐 끝없는 사랑을 주는 내가 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나는 가수다’가 스포일러와 악성 루머 등으로 논란이 되고 가운데 윤도현이 트위터(@ybrocks)에 올린 글.

### 이승철 “제가 등수 때문에 만나가는 것 같나요?”

“나는 가수다’에 나오면 관객들도 2~3위 정도는 줄 것”이라며 자신의 미니홈피(www.cyworld.com/chung505)에 출연을 요구하는 한 누리꾼의 글에 답하며.

## 오늘의 날씨



주한 날씨	서울/경기	영동	충청	호남	영남	제주
28일(토)	16/27	14/25	15/25	16/26	14/20	15/19
29일(일)	16/27	14/28	14/27	16/27	15/25	17/23
30일(월)	16/27	12/27	15/26	16/28	16/26	18/25

**스포츠동아** 광고문의: 02 2020 1010  
 구독신청: 1588 2020  
 FAX: 02 2020 1015  
 www.sportsdonga.com  
 발행인: 송대근 대표전화: 02 2020 0114  
 편집인: 최명희 편집: 02 2020 1039  
 인쇄: 최명희 소모자1부: 02 2020 1052  
 편집국장: 이성훈 소모자2부: 02 2020 1051  
 광고국장: 이숙옥 연태연태부: 02 2020 1061  
 사진부: 02 2020 1068  
 (우)110-715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1  
 2009년 3월 3일 등록번호 서울 가-00131호  
 2009년 3월 24일 창간  
 본지는 신문윤리규범 및 그 실천 요령을 준수한다  
 구독료: 한달 12,000원, 1부 700원